



5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돌핀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결정전인 제41회 슈퍼볼에서 시카고 베어스를 누르고 우승한 인디애나폴리스의 쿼터백 페이튼 매닝이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디애나폴리스 슈퍼볼 탈환

시카고 누르고 36년만에 NFL 챔프
천재 쿼터백 매닝 '최우수 선수' 영예

천재 쿼터백 페이튼 매닝(31)을 앞세운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36년 만에 슈퍼볼 정상에 탈환했다. 아메리칸풋볼(AFC) 우승팀인 인디애나폴리스는 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돌핀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결정전인 제41회 슈퍼볼에서 내셔널풋볼(NFC) 1위 팀 시카고 베어스를 29-17로 누르고 지난 1971년에 이어 팀 통산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사상 첫 흑인 감독이 슈퍼볼 맞대결에서 승리한 토니 던지(54) 감독은 우승컵인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에 키스한 첫 흑인 감독이라는 영광도 함께 안았다. 2003년과 2004년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2차례 수상하며 현역 최고 쿼터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유독 큰 경기 징크스를 떨치지 못했던 매닝은 이날 MVP를 수상해 1998년 프로 데뷔 후 선수 인생 최고 순간을 만끽했다. 그는 이날 38개의 패스 중 25개를 성공하

고 247야드 패싱을 기록하며 상대 쿼터백 잭스 그로스먼(165야드 패싱)과 맞대결에서 완승했다. 슈퍼볼 사상 처음으로 장대비가 퍼붓고 땅이 질퍽이는 최악의 조건에서 벌어진 이날 경기에서 '날카로운 창'을 앞세운 콜츠는 '막강 방패'를 자부했던 시카고의 수비진을 유린하며 여유 있게 승리했다. 콜츠는 러싱(191야드-111야드), 패싱(239야드-165야드) 등에서 모두 베어스를 압도하며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갔다. 도미니크 로즈(113야드)와 조세프 아다이(77야드)는 패싱 190야드를 합작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공과 그라운드까지 모두 미끄러운 상황에서 펄펄과 언더버가 속출했지만 그때마다 승리의 여신은 콜츠편으로 기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상 첫 흑인감독 맞대결 '스승' 던지 "스미스 미안"

수천억원의 돈이 한꺼번에 몰려 가장 자본주의적인 스포츠 이벤트로 불린 올해 제41회 슈퍼볼은 사상 첫 흑인 감독끼리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토니 던지 감독과 시카고 베어스의 러비 스미스 감독.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탬파베이 버캐니언스에서 감독과 코치로 한술밥을 먹은 사이라 슈퍼볼에서 스미스 감독의 청출어람(靑出於藍)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승리는 스승 던지 감독의 차지였다. 스포츠전문 케이블 ESPN이 5일(한국시간) 슈퍼볼이 끝난 후 인터넷판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4대 스포츠 챔피언결정전 중 흑인 감독끼리 대결한 것은 1975년 미국프로농구(NBA)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의 알 애를 감독과 워싱턴 볼리츠의 KC 존스 감독 이후 이번이 두 번째였다. 백인 스포츠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와 130년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는 아직 흑인 감독끼리의 챔피언 결정



제41회 슈퍼볼에서 시카고 베어스를 누르고 우승한 인디애나폴리스의 토니 던지 감독이 얼음물 세례를 받으며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전 맞대결이 없다. 미국프로풋볼(NFL)에서 최초의 흑인 감독은 1919년 아크론 프로스를 이끌었던 프리츠 플라드였고 이후 명맥이 끊겼다가 1989년 아트 셸이 올랜도 레이더스 지휘봉을 잡고 본격적인 흑인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던지 감독의 우승은 미국 스포츠 흑인 역사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日 전훈 캠프를 가다

미야자키=박진표 기자



함평다이너스티CC '캐디의 날' 성료

사장이 경기도우미 역할
"고객들 입장 많이 느껴쥬"
호남 첫 GPS 서비스도

세계질 양진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사장 이준희)가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을 '캐디의 날'로 정하고 5일 '제1회 캐디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제1회 캐디의 날은 경기도우미가 내장객이 돼 직접 라운딩을 하고, 직원들이 경기도우미가 돼 '역할 바꾸기'를 통해 경기도우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또 경기도우미들이 실제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천교육 차원에서 이뤄졌다.

오전 8시30분부터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이준희 사장이 직접 경기도우미로 참여해 카트를 운전하고 플레이를 도왔으며 직원들은 경기도우미로서 현장업무에 임했다.

이준희 사장조에서 라운딩을 한 윤세영(27) 경기도우미는 "사장님 한테 일일이 클립을 주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희 사장은 "직원들간의 화합과 캐디들의 사기진작, 내장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를 가졌다"며 "경기도우미들과



제1회 캐디의 날을 맞아 경기도우미로 나선 이준희 사장(오른쪽)이 캐디들의 퍼팅이 끝난 후 깃발을 세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직원들이 오늘 행사를 통해 고객입장에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다이너스티CC는 호남최초로 70대의 모든 카트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카드 관제시스템(GPS)'을 부착, 오는 3월 1일부터 내장객들에게 정확한 거리와 홀 설명 등 최상의 라운딩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카드 관제시스템은 드라이버 샷을 한 후 누구든지 볼의 위치를 모니터에 표시하면 홀까지

의 남은 거리, 그린 경사도, 그린 주변에서 홀까지의 거리, 바람의 방향 등 라운딩중 골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골퍼들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카드 관제시스템을 통해 앞, 뒷 팀 간 경기상황 등 전 코스의 경기운영을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서정환 감독·박승호 코치는 영원한 스승"

이승엽, KIA 캠프 깜짝 방문

"두분은 나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5일 일본 KIA스프링 캠프를 깜짝방문한 이승엽의 첫 말이다. 이승엽은 이 말처럼 서정환 감독, 박승호 수석코치(이상 KIA)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지난 1995년 경복고를 졸업한 이승엽은 그해 계약금 1억3천200만원을 받고 삼성에 입단했다. 처음 입단할 때의 포지션은 투수였다. 그런데 팔꿈치가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았고, 재활중에 재미삼아 방망이를 잡았는데 이 모습이 당시 박승호 타격코치의 눈에 띄었다.

이승엽의 타격자질을 알아본 박 코치는 "딱 일주일만 타자를 해보라"고 권유했으나, 이승엽은 한국시리즈의 우승 투수가 되는 게 꿈이라며 고집을 부렸다.

이후 박 코치의 끈질긴 설득 끝에 타자로 전향한 이승엽은 첫해 13홈런(타율 0.285)을 터트리며 아시아 홈런왕의 탄생을 알렸다.

박 코치는 "승엽이를 보니 감이 왔는데 구단에서 반대를 했다. 그래서 실패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더니 허락하더라"면서 "승엽이가 성공 못했으면 나도 실업자가 됐을 것(웃음)"이라고 당시에 회상했다.

박 코치는 이승엽에 대한 에피소드도



5일 KIA타이거즈 일본 스프링캠프를 방문한 이승엽이 일본야구 선배인 이종범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코치가 타자 전향 권유...오늘의 내가 있게됐쥬"

한 토막 꺼내놨다.

박 코치는 "(이)승엽이는 야구에서 만큼은 욕심이 많은 선수다. 타격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밤 늦게 내 방으로 찾아와 자신의 타격폼이 담긴 비디오 분석을 함께 하자고 졸랐다. 그러다가 새벽 1시쯤 되면 '코치님 라면 한 그릇 사주세요'라고 속속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타격폼을 교정해 달라며 1시간이 넘게 배트를 휘둘러 댔다"라며 이승엽의 타고난 성실함을 전했다.

이처럼 박 코치가 이승엽을 타자로 전향시킨 지도자였다면 서 감독은 이승엽을 성장시킨 지도자다. 이승엽은 지금도 야구를 하면서 지도자에게 가장 존이 낮

던 기억을 돌리면 서 감독의 이름을 꺼내 놓는다.

97년 당시 삼성 수비코치를 맡고 있던 서 감독은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훈련에 늦게 참가한 이승엽을 "정신 상태가 안돼 있다"며 나흘동안 달리기만 시키는 등 호되게 다스렸다.

이승엽은 결국 서 감독의 방에 찾아와 '열심히 하겠다'며 통사정을 했고, 이후 마음 자제를 다시 잡았다. 이승엽은 결국 서 감독이 삼성 감독 부임 2년째를 맞은 99년 8월 대구구장에서 43홈런(당시 한국신기록)을 기록한 뒤 승승장구했다.

/lucky@kwangju.co.kr